

봉은사

대규모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일반인대상 문화강습으로 개발

관문사

미술전·서예전 등 적극 유치
국악예술단·그룹사운드도 결성



◇ 지난해 11월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천태예술제. 격년제로 실시되는 예술제를 통해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의 새장을 펼치고 있다.

“사찰을 문화도량으로”

문화의 세기, 문화적으로 불교를 전할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불자와 일반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사찰들의 고민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은사가 '봉은문화예술단' 창립을 올케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문화 포교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나섰다. 새로 구성되는 어린이예술단은 만 3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녀 108명을 선발해 무용, 연주, 합창, 연기 등 분야별 전문 유·소년 공연단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예술단은 연극, 마임, 대중가수, 연기자 등 프로급단으로 구성, 문화 예술을 방편으로 불교문화를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또 합창단은 기존 합창과 더불어 법패 등 불교전통음악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독창적 영역을 확보하고, 무용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습프로그램 개발이 주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직 구축을 통해 봉은예술단은, 안으로 신도와 신도자녀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기능에 충실하는 한편, 밖으로 초파리와 월드킴 등 국내외의 문화 학술행사에서 한국불교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준비와 발족과 더불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구성 등 완벽한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도 문화를 포교 방편으로

지역민과 호흡하는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관문사를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의 뜻에 따라 98년 개원 이후 미술전시회, 서예전 등 각종 전시회를 유지하고, 지난해 9월에는 2백명 규모의 국악예술단을 창단하고, 청년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그룹사운드도 결성했다.

이같은 활동은 불교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격년으로 마련하는 천태예술제에서 꽃을 피운다. 새로운 불교음악과 무용을 선보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한마당 속에서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관문사는 현재 불교전사관 건립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겨투기 대회와 예술제, 합창제 등 대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불교문화 진흥을 통한 포교의 새장을 열어 나가겠다고 한다.

합창단을 중심으로 한 사찰들의 문화포교는 그 역사가 오래다. 상당수의 사찰에서 합창단을 구성하고, 각종 법회나 행사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제 이같은 활동들이 기초가 되어 몇몇 신도들의 소모임적 친목도모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문화포교에 나서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앞으로 사찰은 청소년과 중장년, 노년에 이르는 계층별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공간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사찰의 흐름에 부응하는 살아있는 신행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 전통법패의 맥을 오늘에 되살린 송암스님의 영결식은 3일 서울봉원사에서 영산재보존회장으로 봉행됐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송암스님 입적

범패연구-보급에 헌신

후학 1200여명 양성

우리 민족문화의 맥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남다른 열정으로 전통불교음악인 범패의 보급과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송암스님(세수 86세, 법랍 67세)이 1일 우리 곁을 떠났다.

스님은 여든을 훌쩍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봉원사 영산보존회 부설 범패대학에서 안치비소리와 짓소리 등 영산재의 모든 의식을 직접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열반에 들기 하루 전까지도 새로 맞은 범패대학 신입생 모집과정을 준비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범패대학 3학년 과정을 직접 지도할 계획이었다. 스님은 출가 이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영불하는 일을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 지난 1일 새벽에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새벽예불을 마치고, 몸을 깨끗이 씻은 뒤 설법전에서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앉아서 열반에 드셨다. 생사의 경계를 일상이 넘나들 듯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다.

스님은 19세 때 아버지인 운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범패를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출가 당시부터 봉원사 이월하(李月河)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해, 타고난 미성과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 남다른 기량으로 10년을 배우야 하는 범패과정을 2년만에 습득했다.

지난 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지정 받은 후 한국전통불교문화의 계승과 한국불교음악의 원류인 범패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다.

87년 봉원사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대사승놀이 이어 무형문화재 단체지정을 받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단오절 영산재를 열었고, 불사의 현장에서 후학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전통 범패의 진수를 몸소 보여 주었다. 스님은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진 범패의 맥을 잇기 위해 그동안 김구해(준 인간문화재), 마일문스님(봉원사), 조동선스님(봉원사), 이기봉스님(봉원사), 등희스님(영랑사) 등 1천2백여명이 넘는 후학을 양성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4년 문화의날 기념행사에서 육관문화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범패의 신묘한 성음을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입으로 소리를 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근래 오션 지에 범패를 채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범패의 재맛을 살릴 수는 없어요. 단지 범패의 뼈대만을 기록할 뿐인데, 그나마 범패를 현대 사람에게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고마울 따름이지요.” 생전에 스님은 교본도 없이 구전심수(口傳心授)로 배우는 범패의 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유의 상성(上聲)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그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범패 외길을 걸은 스님의 열정과 노력은 문화의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랜 가르침으로 되살아 날 것이다.

송암스님의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봉원사에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장으로 봉행됐다. 이은자 기자



한국불교음악협회 기금마련 음악회

각 사찰에서 활동하는 합창단 지휘자들이 함께 모여 마련한 '한국불교음악협회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월29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범음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 총재 겸 이사장 운문스님(운문사주지)을 비롯해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불교음악

지도자연합창단의 찬불가 합창과 성악가 정봉스님의 음성공양 등이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운문스님은 공연에 앞서 5억 원 상당의 구기동 운문사를 한국불교음악협회에 회사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는 이번 공연을 통해 3천만원의 발전 기금을 모금했다. 김주일 기자

윤이상의 고향 통영서 '현대음악제' 열린다

불교의 윤희상사와 동양의 노장사상을 음악을 통해 구현했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윤씨의 고향 통영을 최대 음악성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통영 현대음악제-윤이

상을 기리며'가 18일~20일 경남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최희연씨와 창원시립교향악단 등이 윤씨의 다섯개의 소품 '현악중주 제5번' '교향곡 제2번' 등을 연주하는 이번 음악회는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경연시켜 왔던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 비전공자들의 불교연구모임

교양수준 넘어 깊이 있다

교수·강사중심 20여곳 활동

언뜻 불교학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공 학자들을 비롯해 인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모임이 늘고 있다.

소모임이나 순회회를 지원하고 있는 '성철선사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이상의 동아리 형식의 모임이 구성돼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신심'을 충족시키는 교양 수준을 넘어 새로운 이론을 찾으려 노력으로까지 연구의 심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무문관·관장 정기문은 불교를 토대로 자신의 학문영역을 넓히고 있는 대표적 모임. 현재 경제학과 송병암, 회계학과 최준용, 재료공학과 남인택, 지리교육과 옥한석, 미술학과 신철균 교수 등 전공이 다른 14명의 학자들이 하간(S.Hagan)의 '불교'를 탐독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지금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만, 정신문화연구원 김지연 박사,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태 교수 등도 이곳을 거쳐갔다. 동양사학회사상연구회(대표 이영찬)는 영

남대·계명대·대구대·경북대 등 대구지역 교수와 강사 10여 명이 만든 선사상연구원 모임으로 매월 1·3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적으로 연구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해 <육조법보단경의>를 운독했으며, 지금은 <고경(古鏡)>을 공부하고 있다. 이영찬(계명대 사회학과)교수는 "선사상은 통일체적 세계관으로, 아직까지도 현대 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인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논리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틀"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원효스님의 <대승유정참회> (발심수행장)를 읽은 동국대 '동학서당', 전남 영암의 대불대 교수들의 모임인 '우담발화' (대표 이호근), 강원도 원주 상지대 교수들의 모임인 '불인제' (대표 최종덕)도 있다. '동학서당'은 전통문화에 이해하기 위해선 한문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동국대 36명의 교수들이 꾸린 한문강독 모임이다. 또 영남대 사·박사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자료운동회' (대표 김은곤), 서울교육대 '육조단경운동회' (대표 이정희), 부산대 불교동경회(회장 이진오) 등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학 비전공자이지만, 모임에서 이뤄낸 연구성과물은 기존 불교학계의 신선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21세기 선진화 포교학당 2000학년도 불교복지 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세의 으뜸가는 「의왕(醫王)」이시며 「중생구제 복지사」입니다.
○ 자리아이(自利利他)란 「스스로의 지혜를 밝혀 나를 건지고 이웃을 건져주어 더불어 복된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내 가족에게 몸과 마음의 「안락」을 보시 하십시오. 이 실천이 최고의 복덕(福田)이요, 포교이며, 수행입니다.

1. 모집학과

Table with 6 columns: 과정, 기간, 교육일시, 입학자격, 등록금, 특전. Lists various Buddhist welfare and health programs with their respective schedules and fees.

2. 과정설명

○ 위의 각 과정은 덕 높은 스님들과 유명대학의 전문교수님들이 기초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쉽게 교육합니다.
○ 초발심 분자 뿐만 아니라 불교지도자들도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개인·가정·사회가 갖고 있는 정신적 갈등과 신체적 고통 등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건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및 포교 교육과정입니다.

3. 구비서류 및 원서마감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사진3매(반명함판)
○ 마감일: 3월 8일(수요일)까지 / 불심 호스피스(간병봉사)과정은 2월 18일까지

4. 입학식

○ 3월 10일 금요일 오후7시 / 불심 호스피스(간병봉사)과정은 2월 22일(화) 오후2시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동 847-18 (간축사회관6층)
학 장: 혜도스님 문의전화: (051)647-6556~7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8년간 2천여명문 졸업·41기생 모집중>

- 1. 강의시간 3월 2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범패의식(범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대 범패의식 교육)
3.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이봉순박사, 김호귀박사, 권오성법사, 범현스님(동국대), 김은희박사, 박경준박사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5.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9일까지 (본대학 서우과) *수시접수가능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우 법사초 수여 ○ 포교실습 지방자치법회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Table with 4 columns: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Details the application process and requirements for the Buddhist University.

원서교부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추암동 358-17
☎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